

세계의 여성운동·독일③·매맞는 여성의 쉼터 《여성의 집》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

구타 당연시 하는 남성 편견 경험하며 자율적 여성운동 결단

이수자/프랑크푸르트 사회대 박사과정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여성들을 위한 보호 기관으로 독일에서 《여성의 집》이 생겨난 것이 70년대 후반의 일이다. 1976년 베를린에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의 집》이 설립된 것을 계기로, 매맞는 여성들의 문제를 여성문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한 여성운동가들은 1977년에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Frauen helfen Frauen e. V.)라는 단체를 결성하면서 매맞으며 사는 여성들의 장기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여성의 집’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들이 이것을 여성들에 의한 자율적인 보호시설로서만이 아니라 시(市) 정부기관으로부터 상당부분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사회기관으로 정착시킨 것은 여성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라고 할만 하다. 물론 그것은 시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부처들과의 오랜 대화와 투쟁의 결과이다.

인건비·운영비 시에서 보조

필자가 취재한 슈투트가르트시의 《여성의 집》 역시 준비위원회가 시정부와 오랜 설득과 투쟁을 거친 끝에 위원회 결성 5년 만인 83년에 와서야 방이 4개 있는 주택을 얻어서 문을 열 수가 있었다.

“우리가 여성의 집을 준비하고 있을 당시에 이미 남편의 폭력에 못견디 도망쳐 온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을 여러 준비위원들의 집에 분산 수용해야만 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했어요.”

담당자인 베아트릭스 베크씨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이 여성의 집은 자율적 여성운동이 모체가 되어 생기기 때문에 관장이라든가 하는 식의 대표가 따로 없다).

많은 여성들이 뼈가 부러지거나 갈바름을 당한 상처, 구타와 발길질로 부어오른 얼굴, 코가 부러져서 제모습을 잃은 얼굴 등 형편없이 파괴된 모습으로 여성의 집을 찾아 왔다. 더 비참한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자의식 상실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인데 이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바보같고 가치없는 인간’이라는 의식이 주입된 결과다.

방 40개 짜리 규모로 시작한 이 시설은 지금은 한방에 하나 또는 두개씩 모두 10개의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규모이다. 준비위원회가 여러해 동안 관계부처를 설득한 결과, 시의 재정보조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건물을 시에서 받고 인건비의 40%, 운영 비용의 20%를 보조 받고 있다. 수용되는 여성들은 하루 10마르크(약 4천5백원)씩의 최저 숙박비를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이 단체 구성원들의 자원봉사와 모금으로 꾸려가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아내들

슈투트가르트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회의의 구성원들은 전체가 40명 정도로 이 중에는 법관, 변호사, 의사, 심리상담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곳을 찾아오는 여성들이 대개 겪고있는 법률적, 의학적, 심리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인 차원에서 무료로 돕고 있다. 베크 씨의 말을 빌면 “남편으로부터 도망 나온 여성들 대부분은 우연히 일어난 일회적 구타가 아니라 상습적인 구타와 성폭력으로 인해 결국은 더 이상 자기집에 머물 수 없게 되고, 그 때문에 이같은 상처를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여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집으로 피신하는 여성들의 절반 가량이 결국 이혼으로 결론을 내리고 새로 출발한다. 나머지 절반 가량은 다시 남편과 화해를 모색하는데 이들은 또 다시 똑같은 상황 아래서 두번, 세번 여성의 집으로 되돌아 오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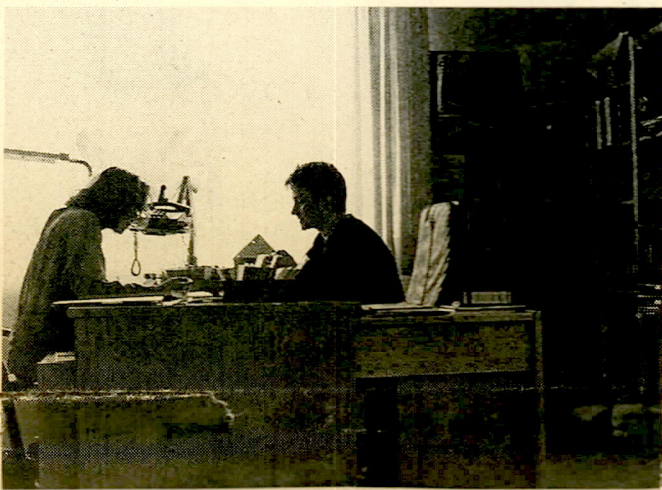
철저한 익명성 보장

여성의 집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준수사항은 절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폭력 속에서 도움을 청한 여성들에게 신변의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는 《여성의 집》의 존재의미가 없다는 것이 실무담당자들의 경험에 의한 결론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성의 집은 전화번호부에도 주소나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 않고 사서함 번호만 표기되어 있다. 그 대신 상담소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여성들은 자동적으로 상담소를 거쳐서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양육권 문제도

간단치가 않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제기될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에게서 아이들을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또한 폭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것이 여성의 집 건립의 기본취지였기 때문에 양육권의 확보는 이 단체의 법률부조담당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상담, 심리치료,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더 나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사회적 준비 등을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 자체 내의 소그룹모임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이 이곳의 또다른 특



▲상담소 직원의 집무. 왼쪽이 베아트릭스 베크

징. 이곳에 사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문제해결과 그를 위한 객관적 상황판단을 위해 원하는 경우 1주일에 한번씩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모임이 주일에 한번있어서여기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앞날을 결정하는 길을 찾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문제/상황별로 그룹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피해여성이 동반해오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가들, 학령전 어린이들, 청소년 등으로 나누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 지켜야 하는 규칙 중의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매를 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폭력의 피해당사자로부터 폭력행사의 세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도움을 요청해온 여성이 청소년연령의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온 경우이다. 베크 씨는 “우리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이들은 할 수 없이 청소년 문제 담당기관으로 넘겨져 모자가 떨어져 지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털어놓는다. 한번은 “국민학교 다니는 자녀를 동반한 여성이 있었는데 남편이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를 납치해 인질로 삼으며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야했던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녀는 실무담당자로서 경험하는 가정폭력문제의 복잡성을 토로했다.

1976년 베를린 첫번째 《여성의 집》

이곳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여성들은 알콜중독, 마약중독, 심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원과 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여성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대개의 경우 길면 1년 정도



▲매맞는 여성을 돕는 단체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

이고 그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래 거주하는 여성들이 많을 경우에, 급박한 상황에 처한 새로운 피해여성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생긴다. 이들 실무진들이 바라는 것은 좀더 넓은 건물을 확보함으로써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용능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 인구 60만의 슈투트가르트시에는 이 외에 시립으로 운영되는 또 한군데의 여성의 집이 있다.

독일 전체적으로는 1976년 11월 1일 베를린에서 첫번째로 여성의 집이 설립되었다. 이는 《여성의 집 건립준비위원회》가 시 정부와의 2년 여에 걸친 줄다리기에 끝에 이루어진 결실. 의사, 법률가, 심리학자, 사회학 전공자 등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1974년에 구성된 이 위원회는 여성의 집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을 베를린 시정부와 연방정부의 청소년/가족/보건 등 관련 부처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2년여 동안 힘들게 싸워야 했다. 관계부처에서는 여성의 집의 재정문제를 이곳에서 살거나 일하게 될 여성들이 아닌 외부의 여성들로 구성된 담당위원회에 맡기고, 그것도 3년 기한으로 일종의 시험적인 모델로 운영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또한 이 시설의 이름을 여성의 집이 아니라 《위기 대처 센터》로 바꿀 것을 종용할 뿐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워 여성운동가들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제한하려 들었다.

이미 1년 반 동안 준비위원회 회원들이 돈한푼 안받고 힘들게 노력하던 1976년 여름까지도 베를린 시의회에서는 “이 《위기 센터》가 여성운동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판장이 돌아왔다. 표면상의 이유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구타당하는 여성 문제의 복잡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정치인들과 관청, 당사자들과 그들의 배우자들간의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막자는

발상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이는 이들 정치인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현실에 얼마나 동한한 상태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은 여성이 도울 수 있다.

매맞는 여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경찰, 변호사, 의사, 사회문제관할 관청직원, 또는 목사 등도 기본적으로 매맞는 여성의 편에서 문제를 이해하기보다는 같은 남성으로서 남편들의 입장에서 서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피해여성의, 매를 맞아서

부어 오른 팔과 다리, 목 등을 촬영하던 경찰관 한사람이 “내가 술한잔 한 것을 집에서 내마누라가 트집잡으면 뒷통수 몇대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속적인 구타를 더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어떤 여성의 경험에 의하면 법관들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내가 법관에게 ‘밤에 자고있을 때 꺼떡하면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데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느냐’고 하자 법관은 ‘피고인 당신 남편으로부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면서 내가 처해온 상황, 또 이 재판 이후에 분명히 따를 무서운 보복조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경험들이 ‘여성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여성들,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라는 결론을 끌어내게 했고 이것이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 단체의 결성동기가 된 것이다. 그것이 독일에서 여성의 집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더 나아가 그 안에 사는 여성들이 주도하는 자치적인 운영방식을 발전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각 연방국마다 하나씩(시립을 제외하고라도) 이들 ‘자율적’ 《여성의 집》들이 있고 중소도시에도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그것은 일면 여성에 대한 가정내의 폭력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자기방어능력이 향상되어가는 경향을 시사하기도 한다.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남성들의 심리 저변에는 사회생활에서의 열등감이 깊이 깔려있고 동시에 여성들에 대해서는 남성으로서의 지나친 우월감이 평형을 잃고 교차하기 때문에, 남성폭력의 해결방법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심리학자들의 지적이다. 위계적/가부장적 사회질서와 경쟁질서가 개개인의 관계에 병적으로 반영되어오는 현대사회에서 폭력이 다음 세대에세습되고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것은 당장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 단체가 여성운동의 구체적인 한 분야로서 여성의 집을 세우고 이를 통해 인간관계의 새로운 지평점을 모색하는 시도이기도 하다.